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KT 노동조합

TRADE UNION NEWSPAPER

10 11th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4820(교육선전실 4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2009년 12월 2일(수)

노동계 핫 이슈

초대 전공노 위원장 해임 휴일집회 참가, 광고게재 이유

정부가 당선된 지 5일밖에 안된 초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집회 참가 등의 이유로 해임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3일(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대회 참가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광고(7월), 공무원노조의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광고 게재 등을 이유로 양성윤 위원장을 해임했다. 양 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인 18일(수) 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초대 위원장을 선출하자마자 해임한 것은 합법적 조합원 자격을 빼앗아 노조 결성 자체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참가자 보복성 무더기 해고

쌍용자동차가 최근 지난 여름 '정리해고 철회' 파업에 동참했던 비해고 노동자 34명을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18일(수)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에 참가했던 132명의 비해고 노동자 가운데 126명을 징계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지난 8월 합의정신은 사라지고 치졸한 보복만 남았다"며 "보복성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역시 이번 징계와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공공부문 단협 해지 봇물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노동계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11월 들어 5개 발전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노조에 단협해지를 통보했고 25일(수)에는 철도공사에서도 단협해지가 통보됐다. 이보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과 전교조, 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도 단협이 해지됐다.

철도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에 반발해 26일(목)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민주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도 대규모 집회와 공동투쟁을 준비중이다.

일련의 단협해지 통보들이 개별 노사관계 차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 파업방해 조사착수

발전소 사측이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파업동참을 막기 위해 사무실을 봉쇄하고, 조합원의 가족에게 해고 협박 전화를 했다는 등의 인권탄압 사례가 폭로되면서 국회의원, 변호사, 인권단체들이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야4당 의원들과 민변, 인권단체 등은 11월 26일(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노조 인권침해 실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현장실태조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 소속 영흥화력발전소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상 해지에 반발하며 지난달 18일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하고 순환식 지명 파업을 벌여왔다.

[노사정책간담회 주요 내용]

영업정책 및 조직운영 문제점 집중 성토

KT노동조합은 지난 11월 30일(월) 노사정책간담회를 열고 현 영업정책의 문제점 및 조직개편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노사 각각 9명씩 참가했으며, 노동조합이 먼저 현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뒤 주제별 토론과 마무리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줄세우기식 영업, 허수경영의 원인

노동조합은 현 영업정책과 관련해 △부문별/유통점별 영업판매전략의 혼란 △지사내 영업창구 혼재로 인한 고객 불편 △연이은 영업 프로모션으로 인한 내부 갈등 증폭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줄 세우기식 영업, 과도한 윤리경영으로 인한 보신주의 팽배, 허수경영 등 영업정책 전반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지사 내에 플라자, C/S센터, M&S 등이 존재하나 각기 업무가 달라 원-스톱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영업프로모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년 내내 진행된 영업프로모션으로 조합원의 피로누적도가 극심하고 특히 부문간 업무부하의 불균형으로 조합원간의 반목과 이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조직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재 영업방식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정책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일선 지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줄 세우기식 영업과 허수경영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영업프로모션에 대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1년 내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절별로 맞춰 현장에 충전 시간을 줄 것"이라 답변했다.

조직개편 이후, 부문이기주의·조합원 갈등 팽배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동조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영시너지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문 이기주의와 조합원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현재 KT영업정책은 정책도 전략도 없다"고 혹평했다.

노동조합은 올해 초 조직개편 당시 영업우수인력 대부분이 법인사업단으로 이동하면서 마케팅단의 우수인력이 바닥났고 이 같은 상태에서 마케팅단에 쏟아지는 과도한 판매목표로 인해 조합원들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영업정책과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앵벌이 시키듯 돌리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CIC 체제 이후 부문간 경쟁이 심화돼 부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부문간 업무협조도 원활히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단과 법인사업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속 부문부터 챙기고 보자는 식의 부문 이기주의가 극심하다"며 "이로 인해 업무협조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문간 업무부하가 불균형해 마케팅단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문간 갈등이 심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은 "CIC 체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현 체제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CIC라는 좋은 제도가 내부경쟁 과열로 인해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을 불안케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부경쟁을 지양하고 상품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홈부문과 기업부문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도시와 전략지역을 제외한 중소도시에서는 마케팅단과 법인사업단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력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많고 특히 노사간 합의사항마저도 현장에서 무시되거나 변칙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현장 조합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KT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그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앞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영진도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쉼없이 달려온 2009, 도약의 발판 마련

▲ 2009년 KT노동조합은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0년 더 큰 비약을 기대해 본다. 사진은 10대 집행부 출범식 모습

[2009년 결산] 10대 집행부 임기 첫해였던 올해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KT-KTF 합병, 인사보수제도 전면 개편, 간난신고 끝에 체결한 단체협정,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와 KT-KTF노동조합 합병까지…. 몇 년에 걸쳐 해야 할 일을 1년만에 끝낸 듯 쉼없이 달려온 2009년이다.[관련기사 2면 화보]

첫 손에 꼽히는 사건은 KT-KTF 합병이다. 몇 년간 지지부진하던 합병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6월 1일 통합KT 출범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합병은 KT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초 합병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됐고, 단체교섭에서는 인사보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KT-KTF노동조합도 공식적인 합병을 선언하고 8월 11일 합병출범식을 개최했다. 거대 KT의 딱딱한 조직문화도 구 KTF의 '젊은피'가 수혈되면서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15년간 함께 해온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KT노동조합만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선포한 것도 중요한 사건이다. 노동조합은 7월 17일 조합원 95%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상생과 연대의 새 노동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정파싸움과 헤게모니 다툼에 찌든 민주노총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KT노동조합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열한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중요한 성과지점이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임하며 △고용 안정 △임금 현수준 유지 △특별위로금 지급 △통신보조비 상향 조정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예년에 비하면 미흡한 요구라는 지적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을 진지하게 고려했고, 무리한 요구안으로 인한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자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협상이 시작되자 사측은 임금 5% 반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들고 나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을 샀고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까지 사태는 악화됐으나, 끈질긴 협상과 여론전으로 결국 요구안을 관철했다.

이 밖에도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되고자 이동정책실을 꾸준히 운영했고 2월과 6월에는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위원장 현장 순시 △합병 관련 대정부 활동 △KT그룹노조 강화 △소외계층 봉사활동(2회) 진행 △위원장기 체육대회 개최 △제7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 개최 △중앙상집 수요강좌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개시(7.1) △수자원공사노동조합과 MOU 체결 등 다양한 일상활동을 진행했다.

정리하면, 10대 집행부 임기 첫 해인 2009년은 KT노동조합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시작과 동시에 KT노동조합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략과 비전을 발표한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2010년을 기대해본다.

한국노총 돌연 입장선회, "왜?"

복수노조 유예, 임금금지 단계적 시행 수용할듯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정부를 압박하던 한국노총이 11월 30일(월) '복수노조 금지'만 시켜준다면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개혁해 나가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도부가 한나라당사를 점거하던 지난달 27일(금)만 해도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총파업을 선언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국노총이었다.

한나라당 중재안 사실상 수용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하면서까지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한나라당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락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 있었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영배 경총 부의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회동에서 안 대표가 중재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중재안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3년 동안 더 유예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의 경우 1단계로 내년부터는 노조원 1만명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만 시행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경우 1,000명 이하 사업장은 노사자율에 맡기는 한편, 1000~1만명 규모 사업장의 경우 5,000명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눠 적용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유보기간과 전임자수 제한 등과 관련돼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 중재안은 한국노총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도입을 막고, 복수노조 허용도 유예됐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이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뒷통수 맞은 민주노총, 대응책은?

이같은 거래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민주노총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발표 이후 내놓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당당히 우리 길을 갈 것이며 한국노총이 투쟁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연연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과 경총과의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지속하는 한편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맹공을 가하는 '분리타격' 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월 1일(화) 오전 파업중인 철도노조와 공식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목적은 모두 '불법활동 근거찾기'다. 철도노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의 '불법성'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의 경우도 지난달 8일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과의 연대가 사실상 파기된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정부의 '분리타격'에 맞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09, 변화와 도약의 KTTU!

2009년 활동을 돌아보며
(2009.1~11월)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 2009년 KT노동조합 앞에는 굵직한 일감이 많이 놓여 있었다. 돌아보면 하나 같이 쉽지 않은 일들이었다.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KT-KTF 합병, 파국 위기까지 치달았던 단체협상, 노동조합 조직정비, 민주노총 탈퇴와 새 노동운동 선언, KTF노동조합과의 합병 등등… 하지만 KT노동조합은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왔다.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도약을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 2009년 KTTU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2010년 더 큰 도약을 기대해본다.

1월 10대 집행부 출범
"위기에서 희망으로"

김구현 위원장은 1월 6일 열린 10대 집행부 출범식 및 취임식에서 "3만 조합원과 함께 위기에서 희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9일 김구현 위원장 제주지방본부 현장순회 △12~13일 1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15일 KT그룹노조협의회 1차 대표자회의 △19일 김구현 위원장, 신입사원 특강 △20일 1차 전국조직국장회의 △30~2.1일 김구현 위원장, 일본 NTT노동조합 방문

2월 확 달라진 조합간부교육
"신임 조합간부 역량 강화"

2월 2일부터 4일까지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는 111명의 신임지부장(분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참여 위주의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생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높여냈다.
△13일 지부대회 개최 및 전국대의원 281명 선출 △16일 KT-KTF 합병관련 국회 공청회 참가 △20~27일 지방본부대의원대회 개최 △19~20일 이동정책실(강원) △20일 강원 태백지부와 정선지부에 '사랑의 생수' 7,200통 전달 △25일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 방문, 합병 관련 노동조합 입장 전달

3월 2009년 전국대의원대회
"으샤으샤! 고용안정 지켜내자!"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지리산수련관에서 열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전국대의원 280명과 조합간부들은 09투쟁 승리와 고용안정 쟁취를 다짐하며 2009년 사업계획을 힘차게 결의했다.
△2~6일 2008년 하반기 회계감사 시행 △4일 전국조직국장회의 △5일 선배열사 합동추모제 △8일 3.8여성대회 기념식 및 IT연맹 여성간부 역량강화 수련회 참가 △9~10일 김구현 위원장 전남지방본부 현장순회 △10~11일 3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12일 전국재정국장회의 △30~31일 이동정책실(충북) △긴급출동비, 휴일수당미지급 등 현장건의사항 시정조치

4월 142개 지부 승격 및 신설지부 지부장 선출

노동조합은 중앙위원회의 규정개정에 따라 4월 10일 전국 142개 분회를 지부로 승격하고 23일에는 신설지부 및 사고지부 대표자 선출선거를 실시해 신임지부장 49명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10대 집행부 조직개편 및 구성이 완료됐다.
△2일 4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2일 1차 중앙집행위원회의(중앙선관위 구성) △2일 1차 중앙위원회의 개최(규정 개정) △4~5일 4.3제주항쟁 정신계승대회 참가 △15~17일 이동정책실(본사) △17일~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 가동 △17~30일 2009년 춘계체육행사 △22일 김구현 위원장 강북지방본부 현장순회 △22~23일 UNI 아태지역 관리감독직 · 전문기술직 포럼 참가

5월 2009 단체교섭 체결
고용안정 · 임금사수

노동조합은 5월 29일 2009년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고용안정을 담보한 임금 현수준 유지 ▲통신보조비 상향 조정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했으며, 특히 사측이 요구한 임금삭감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아냈다.
△2009년 단체협상 본회의 4회, 임금실무소위 5회, 단체협약실무소위 1회, 복지기금협의회 3회,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 10회 개최 △1일 5.1절 노동자대회 참가 △7~8일 제6회 위원장기 축구대회 △14~15일 제8회 산업안전보건대회 △16일 5.18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6월
김구현 위원장 이동정책실 통해 현장 속으로…

10대 집행부는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2월부터 꾸준히 이동정책실을 운영하고 있다. 6월 15일과 16일에는 김구현 위원장이 직접 서부지방본부로 나가 현장 조합원과 함께 케이블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10일 5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7~10일 민주노총 10기 자주통일선봉대 참가 △13일 6.15 공동선언 발표 9주년 자주통일결의대회 참가 △17~19일 2차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22~24일 김구현 위원장 KT그룹사 방문 △24일 중앙상집 수요강좌 △30일 과천 녹향원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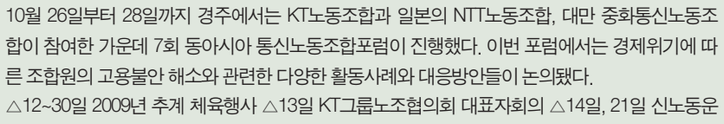
7월
민주노총 탈퇴 새로운 노동운동 선언

7월 17일 진행된 조합원총회 결과 민주노총 탈퇴가 조합원 94.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의 구태와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동운동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모아진 결과"라며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겸비한 승리와 희망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1일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개시 △7~8일 6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8일 중앙상집 수요강좌 △20일 UNI-KLC 여성위 주최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자 차별 대응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

8월 KT-KTF노동조합 합병 출범식
'더 큰 하나로!'

KT노동조합과 KTF노동조합이 '더 큰 하나, 더 강한 하나'가 될 것을 다짐하며 8월 11일 역사적인 합병출범식을 개최했다. 전국조합간부 500여명과 이석채 회장, 경영진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기도 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100년 역사를 가진 KT의 저력과 젊고 참신한 KTF의 역량이 합쳐진다면 더욱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김구현 위원장, 전국지방본부 순회 간담회 진행 △3~25일 조합원 하계휴가 수기 및 사진 공모 △17~21일 하반기 노사합동 실태조사 △26일 중앙상집 수요강좌

9월
개인고객부문 전국지부 순회



KT노동조합은 9월 7일 개인고객부문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8일부터 11일까지 개인고객부문 전국지부를 순회하는 등 구 KTF조합원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개인고객부문 조합원들은 KT의 복지혜택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2~3일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태풍피해 위로 방문 △10~11일 7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14~18일 2009년 상반기 회계감사 △18일 '복수노조, 전임자임금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참가 △21~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23일 이동정책실(전북) △24~28일 재해조합원 위로 방문

10월 고용불안 해소방안 집중논의
제 7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는 KT노동조합과 일본의 NTT노동조합,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7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포럼이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사례와 대응방안들이 논의됐다.
△12~30일 2009년 추계 체육행사 △13일 KT그룹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 △14일, 21일 신노동운동을 위한 중앙상집 수요강좌 △16일 전북지방본부 축구대회 △23일 KT노동조합, 수자원공사노동조합과 양해각서(MOU) 체결 △29일 충남지방본부, KT&G신탄진제조창지부와 MOU 체결

11월 지적 장애인 시설방문, 따뜻한 시간 보내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

노동조합은 11월 13일 경북 성주에 있는 예원공동체(지적장애인 시설)를 방문해 봉사활동의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원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주변시설을 청소하고 겨울 땔감을 마련해줬으며, 준비해간 옷가지와 신발, 각종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4~6일 전국조직국장 수련회 △10일 KT그룹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 △19~20일 회계감사 수련회 △23~25일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워크샵 △25일 대구지방본부 지부장 교육 △30일 노사정책간담회

2009년 대한민국을 돌아본다

철수의 일기

올해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철수는 2009년이 싫습니다. 소중한 것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용산에서 장사를 하시던 할아버지는 지난 1월 강제철거에 반대하다 옥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퇴임 후 벼농사를 짓던 서민대통령 할아버지는 자살을 했고 몇 달 후 그 전 대통령이었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탓에 나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쌍용차에 다니던 평범한 아버지는 직장만은 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정리해고 당했고 노동운동하는 삼촌은 내년부터 전임자임금은 안 준다는 사실에 분통해합니다. 김제동 아저씨는 갑자기 TV에 나오지 않고 누나가 좋아하던 손석희 아저씨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촛연료 때문이래요. 서해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외삼촌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대요. 실제로 얼마 전엔 남북이 한판 붙었다지요. 엄마랑 할머니는 4대강 때문에 각종 지원이 뚝 끊겼다며 한숨만 쉬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확 4대강에 빠져 죽고 싶다고… 어쩌면 좋죠? 참, 나는 요즘 매일매일 놀아요. 신종플루에 감염돼서 학교에 안 가거든요^^

2009년 12월 2일 흐림.

01. 노무현, 김대중 전직 대통령 서거

천분지통 [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뜻으로, 임금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당한 슬픔을 이르는 말]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우리는 불과 수개월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마지막까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높이다 떠나갔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해석은 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겨졌지만, 그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두 죽음을 애도하며 늘어선 조문행렬은 단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뤄낸 민주주의가 휘청대고 후퇴하는 모습에 걱정하고 슬퍼한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과 주부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고 인터넷은 가로막혔으며 집회와 시위는 짓밟혔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너덜너덜해졌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사법부의 존엄은 땅에 떨어졌으며, '절차는 위법하나 결과는 유효'라는 미디어법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용산참사의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하고 국민 여론에 밀려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해 착공에 들어갔다.

2010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 전직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절규했던 "참여하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절절한 호소였음을 잊지 말자.

02.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부관참시 [剖棺斬屍 :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신을 참수하는 것으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형벌을 이른다]

용산 참사 발생 300여일이 넘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1월 20일 생존권을 위해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 5명이 경찰과 용역업체의 강제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방화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

법원은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농성자 가운데 한 명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며 죽은 자에게 죄를 물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3천여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한 수사였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의심투성이인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정운찬 총리가 취임 직후 유가족들을 만나 빠른 해결을 약속했으나 빈 말이었을 뿐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반면에 얼마 전 부산 사격장 화재 사건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죽자 다음날 바로 일본인 유족들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 농성을 벌였으나 8월 6일 경찰특공대 진압이 임박하자 농성을 풀고 투항했다. 참혹한 비극은 막았지만 정부의 '노조죽이기'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부장을 포함한 64명이 구속됐고 노조는 테러집단으로 몰렸다. 11월에는 파업에 참여했던 비해고 노동자 126명이 징계받았고 이 가운데 34명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보복성 해고다. 8월 노사합의정신은 사라지고 보복만 남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용산참사와 쌍용차사태,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부관참시와 마녀사냥, 복수극은 계속되고 있다.

03.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금지… 그 결말은?

아전인수 [我田引水 : 자기 논에 물대기란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정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현정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 후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노사관계 선진화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보라는 점이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총 등 권위있는 국제노동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일제히 "전임자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역시 "노-노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며 법적 강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양대 법안을 강행하려는 데에는 다른 뜻이 숨어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현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노동운동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노-노 갈등'을 부각시키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통해 노동운동의 손발을 끊어놓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96년 노동법 개악 총파업 이후 13년만에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04. 예산 먹는 블랙홀, '死대강' 사업

마이동풍 [馬耳東風 : 말의 귀에 부는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태도를 이르는 말]

4대강 사업이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른바 '死대강'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22조원, 2010년에만 4대강 관련 예산으로 8조6천억원 가량을 책정했다.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디서 당겨온단 말인가? 전체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4대강 예산을 당겨오려면 부득불 다른 예산의 삭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생각해놓은 주머니는 다름 아닌 사회간접자본이나 서민민생예산이다.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서민민생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액을 157억원 삭감했고 도로, 철도, 주택 등 지역 SOC사업과 서민주택지원자금도 삭감했다. 이는 서민 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돈을 4대강으로 밀어넣고 미래세대의 돈으로 4대강 삽질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예산 8조6천억원이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이 돈이면 2008년 기준으로 전국 764만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작년 한해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는 3조7백억원에 불과하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도 5조4,500억원 가량 남는다.

이 돈이면 대학등록금 절반이 가능하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국공립대의 평균등록금은 419만원, 사립대는 741만원이다. 등록금 총액은 13조3천억원 정도이고 여기서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하면 등록금 부담액은 11조5천억원 가량이다. 절반은 5조7,500억원이다. 4대강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05. 신종플루, 대한민국을 감염시키다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 :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봐야 늦었다는 뜻. (동)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대한민국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 '괴담' 수준의 난리법석은 진정된 편이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감염자와 사망자수, 유명연예인의 감염 소식에 깜짝깜짝 놀란다. 발병 초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사태를 키웠다는 둥, 전염병 예방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둥,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둥의 비판은 그만하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그래도 이 말만은 해야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다.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면 이제라도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어이없다.

정부의 예방백신접종 계획에 따르면 전국민의 35%에게만 접종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당뇨병 환자와 6개월 이하 영아 등 대표적인 고위험군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없다. 10만원이 넘는 검사비 탓에 저소득층은 검사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역거점병원 강화 예산은 42% 삭감했고 전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부자감세 하지 않고 4대강 예산 조금만 줄이면 해결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예방백신의 부작용이 보도되면서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접종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행히도 부작용 없는 약은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의 한계다.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06. 낙하산 사장에 짓밟힌 방송

칠전팔기 [七顚八起 : 일곱번 넘어지고 여덟번 일어선다는 뜻으로, 많은 실패에도 절대 굽히지 않고 분투함을 일컫는 말]

"포기를 모르는 남자" 한 농구만화의 주인공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MB 이야기다. 총파업을 불사한 노조의 반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협공, 국민들의 매서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MB는 마침내 김인규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성공했다.

작년 8월 K본부에 자신의 방송전략실장이었던 김인규씨를 입성시키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병순 사장을 대타로 앉혔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성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실처럼… 이제 '김인규의 시대'다. "PD 300명을 들어내도 상관없다"는 그의 말처럼 K본부에도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작년 7월에는 대선 당시 방송특보였던 구본홍씨를 무리하게 YTN 사장에 앉혔지만, 내부장악 실패한 책임을 물어 1년 만에 낙마시켰다. 자진사퇴라고 밝혔지만 문책성 인사라는 점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제 남은 것은 M본부다. 지난 7월 드디어 미디어법도 통과시켰다. 대리투표 따위 신경쓰지 않는다.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이 가능해졌다. 눈엣 가시 같던 방송인들도 정리했다. 촛불 몇 번 들었던 윤도현과 김제동이 하차했고 마무리멘트로 전국민을 사로잡았던 뉴스 앵커도 물러났다. 3년째 같은 출연료를 받던 진행자 손석희는 출연료가 비싸 정리됐다. 인터넷도 이젠 안심이다. '미네르바'에게 본때를 보여준 게 효과가 컸다. '아고라'도 잠잠하다. 아차, 하나 놓친 게 있다. 정연주 전 K본부 사장이다. 얼마 전 법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절차와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예상치 못한 결과다. "한 줌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고 하지 않던가. 걱정스럽다.

07. 얼어붙은 남북관계, 돌파구가 없다

고립무원 [孤立無援 : 외롭게 서있어도 도와줄 이가 없다는 뜻으로, 외톨이가 되어 도움받을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이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칫 '동북아의 외톨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북미는 지난 8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을 시작으로 고위급회담에 착수했다. 보스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2월 8일부터 방북할 계획이고 힐러리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 역시 정권교체 후 하토야마 내각은 동아시아 중시정책을 표방하며 대북포용정책에 나서고 있고 하토야마 총리의 12월 방북추진설이 보도되고 있다. 중국 또한 지난 10월초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북미평화체제 추진을 합의하고 대규모 경제원조를 약속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몇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걷어차 버렸다. 첫 기회는 북 조문특사단의 이 대통령 면담이었다. 특사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을 타진했다. 며칠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정은 회장을 만나 또 한번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못 들은 체 했다. 10월말에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남북고위급인사 접촉설이 터져나왔지만 의제와 장소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되었고 급기야 이 대통령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 김 위원장을 안 만날 수도 있다"며 콧대를 세웠다. 이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안한 '그랜드 바겐' 역시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 우방이라는 미국과 일본마저 북한과의 평화협정 고려하고 있는 여건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이유다.

노동조합, 장애인 봉사활동 진행

13일, 경북 성주 예원공동체 찾아 따뜻한 시간 보내

▲ 강인석 조직1국장이 준비한 신발을 신겨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옷가지와 생필품도 전달했다.

▲ 김동욱 정책2국장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3일(금) 경북 성주에 있는 예원공동체(지적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원생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예원공동체에는 지적장애인 3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 10여명은 이날 오전 예원공동체에 도착해 원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원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문을 튼 중앙상집들은 금새 웃고 장난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공동체 보호시설을 청소하고 주변 텃밭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단장했으며 겨우내 쓸 장작도 넉넉히 패주었다. 빗물과 땀방울이 뒤섞여 몸과 옷은 다 젖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또한 일을 마친 뒤에는 직접 준비해 간 옷가지와 신발, 각종 생활용품 등을 원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함께 한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아직까지 국가지원을 받지 못해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원생들 모두가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며 "노동조합이 봉사활동을 해주고 가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과천 녹향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대구지방본부 '조합간부' 교육

인사보수제도 · 산업안전 등 집중 교육

▲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개정된 인사보수제도 및 복무 · 복지제도, 산업안전교육, 노동운동의 새비전과 지부장의 역할 등에 교육이 진행됐다.

대구지방본부(위원장 김근주)는 경주 수련관에서 11월 25일(수)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전체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방본부 상집간부를 비롯해 지부장, 조합간부 등 총 65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개정된 인사보수제도 및 복무 · 복지제도 △산업안전 및 예방법 △노동운동의 새 비전과 지부장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첫날 밤에는 2009년을 돌아보고 2010년을 다짐하는 '조합간부 단결의 밤'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26일 오전에는 경주 보문호 일대를 일주하는 약식 경보대회를 진행했다.

이영태 대구지방본부 조직국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올해 인사보수제도를 비롯해 많은 제도들이 큰 폭으로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방대해 조합간부들이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조합간부들에게 이 내용을 정확히 교육하는데 중점을 줬다"고 밝혔다.

선관위 워크숍 2박3일간 진행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표 유재권, 이하 선관위)는 지난 11월 23일(월)부터 25일까지 도고수련관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유재권 대표를 비롯해 선관위원 3인과 중앙본부 김용규 산업안전국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 주요하게 △선거운동용 동영상 배포 · 제작에 관한 지침 마련 △투표용지 여유분 폐기 △전국대의원 세부 선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용으로 제작, 배포되던 동영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남발과 상호비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앞으로 동영상을 선거용 개인유인물 1종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의 검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5종까지 이용 가능한 개인유인물 종류를 6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고에 대비해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던 여유분의 투표용지도 앞으로는 일체 금지되며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수만큼만 배부된다. 투표용지와 관련한 시비거리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지난 4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전국대의원 선출제도와 관련한 세부 방안도 논의됐다. 이전까지 지부대회에서 선출하던 전국대의원을 내년부터는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 · 의결권은 중앙위원회에 있다.

전국여성조합간부 워크숍

8일부터 2박3일간 개최

노동조합은 오는 12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무주수련관에서 전국여성조합간부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조합원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소 운영 △여성조직 활성화 △지방본부별 여성조직 현황 등을 집중 토론한다. 상담소는 일상생활과 회사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문제를 상담하게 되며 여성문제 전문기관 상담사의 자문을 받는다. 또한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상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본부 곽갑숙 여성국장은 "여성들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들이 상담소를 통해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여성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T그룹노조협의회 집행위 열려

집행위원 선임 완료, 송년회 일정 논의

KT그룹노조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수) 집행위원회를 열어 단사노조 현황 및 주요활동사항을 공유하고 현안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 일부를 선임하고 업무 분장을 결정했다. 총무위원에는 이주형 KT네트웍스노조 사무처장이 선임됐고, 윤병호 KT테크노조 사무처장이 조직 · 정책위원에, 이종석 KT링커스노조 사무처장이 선전 · 대협위원에 각각 선임됐다.

회의에서는 KT그룹노조협의회 현판 및 명찰 제작, 그룹노조 사무실 개소식, 사무원 채용 등을 논의했다. 사무실 개소식은 송년회와 연계해 12월 중순경에 진행키로 하고 그룹노조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캠프 사업은 신종플루 관계로 연기됐다.

한편 10일(화)에는 그룹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난 10월에 당선된 KT링커스노조 이삼재 위원장과 KT텔레캅노조 박정수 위원장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월 노무 상담사례

산재요양기간 중 정년이 된 경우 산재보상 문제

"요양기간에도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Q 제가 현재 산재요양 중인데, 요양을 하다 보니 정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이 되는 날에 정년퇴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이 같은 조치가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A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요양기간 중 정년이 도래한 것을 이유로 퇴직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노동부 행정해석 2002.02.24, 근기 68207-219 참조)

"그럼 퇴직 후에도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가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등)는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재직 또는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치료를 위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해급여 또한 재직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의 신청 및 수급 자격은 귀하의 재직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06. 27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산업재해 상식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요건

출퇴근은 근로자가 일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업무상 재해인정 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요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자.

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출퇴근 재해에 관한 판례의 기본입장

① "근로자의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는 입장임.(대법원 1999.9.3 선고, 99다24744 판결 ;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판결 등 참조)

3. 출퇴근 재해의 유형

① 사업주가 유류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 차량이 회사에 등록되고 회사로부터 유지비를 보조받았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 ·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속하였고, 사고 당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임.(대법원 선고 1996.9.20선고, 96누8666 판결 참조)

② 근로자가 동료의 통근을 자기 소유차량으로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 사업주측의 지시나 사업장 관행 등으로 인해 통근수단으로 일정한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였더라도 당해 통근과정이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지배 · 관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대법원 1997.7.11선고, 97누5251 판결 참조)

③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례는 "피해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중 밤샘 근무를 마치고 추풍령을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산비탈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 에서 통근경로가 선택 불가능하고 통근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점, 사업주가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아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도 좋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03.4.11선고, 2003두1226 판결 참조)

④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판례는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이 사고는 회사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1999.9.3 선고, 99다24744 판결 참조)

4. 맺음말

▶ 판례는 통근재해에 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근을 위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근로자가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 종전에 비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